

‘위·변조는 공단이 막는다!’

- 시험성적서에 화폐와 같은 위·변조방지 기술 전면 도입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시험인증기관 중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 위·변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의 ‘위조 방지 및 복사 방해용 인쇄물의 제조방법’ 특허를 공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은화용지에 홀로그램과 복사방해패턴을 삽입해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종이로 발급되는 공단의 각종 시험성적서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CALSPIA)」시스템에 전산 등록할 때까지의 등록기간을 이용한 위·변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공단이 선도적으로 위·변조 방지 원천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각종 시험성적서도 보안이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단의 이와 같은 노력은 정상화 이행 대책의 하나로 공단업무의 명확성을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창의적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노사, 2014년도 임금협약 잠정 합의



공단 노사(이사장 강영일, 노조위원장 윤정일)는 지난 12일 본사 21층에서 개최된 제2차 본교섭에서 1급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고 2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 이내)을 준수하기로 합의해 2014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11월 14일 이후 10차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28일 만에 잠정합의(안)를 도출하는 등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임금교섭 개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강영일 이사장은 “노사 간 소통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일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30일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부채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적극 추진해 정상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공단 노사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를 계기로 보다 성숙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권고속철도 ‘경부선철도 하부 구간’ 통과

- 일일 경부선 500회 운행 등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단장 오세영)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연계 운행하는 철도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공사 구간의 경부선 하부통과구간(L=165m) 터널이 이달 3일 안전하게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구간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일원의 기존 경부선 철도 구간 지하부를 통과하는 터널로 NATM(공법)이 적용됐으며 특히 터널상부에서 원지반까지의 높이가 13.6m인 저토평 구간으로 풍화암층으로 형성된 연약한 파쇄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해당 구간은 경부선 열차가 일일 500회를 운행하는 곳으로 선로침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부선 철도의 교통 및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매우 열악한 구간이었다.

1)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 터널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법으로 천공 및 발파 후 슛크리트, 록볼트, 보조공법 등의 지보를 시행하며 굴착하는 공법

따라서 정밀한 터널굴착 및 자동화 계측 실시, 터널 비상대책 자문위원단 운영, 선로보수요원 배치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사관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기존 철도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



경부선 하부통과구간은 지난 2014년 6월 터널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6개월에 걸쳐 공사비 100억원, 연인원 3천6백여명, 덤프트럭 등 장비 2천8백여대가 투입됐다. 건설단 관계자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후속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건설기술노하우’ 이용, ‘해외사회공헌’ 전개

- 이집트 교통부에서 철도관련 담당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공동으로 이집트 현지 교통부에서 철도관련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하 철도학교)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집트 교통부의 요청으로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공단에 제안해 진행됐으며 이집트 현지의 철도학교 운영은 공단이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KOTRA 카이로 무역관은 현지 교육장소 마련 등 운영지원 및 홍보를 맡게 된다.

본부는 강사진을 공단 직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철도분야 민간회사의 철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강의내용의 내실을 기했다.

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그간 해외사업 수주를 통한 수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해외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철도기술이 낙후된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철도학교를 운영하는 공헌활동으로 우수한 한국철도기술 전수는 물론 공단의 향후 지속적인 사업수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이집트 철도학교운영의 효과를 검토해 여타 철도 저개발국가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무선기반 제어시스템 실용화’ 연구기관으로 공단 선정

- 일반·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 개발 연내 착수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가R&D사업으로 발주한 ‘일반·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시스템 실용화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연구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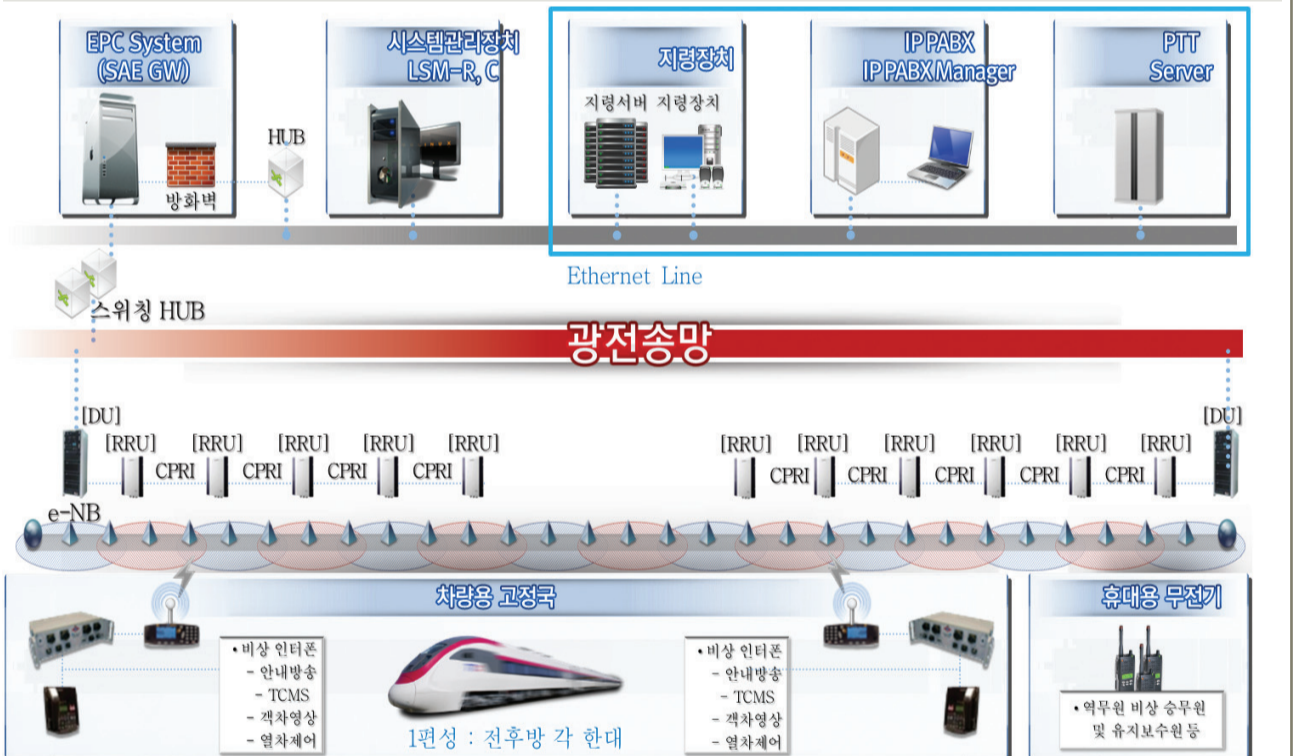
총 연구비 270억원이 투입되는 본 연구과제는 공단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과 연구단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50km/h급 운행열차까지 적용할 수 있는 LTE-R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와 열차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철도기술로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유럽의 철도 선진국에서도 개발 중에 있는 LTE-R기반 무선통신 및 열차제어시스템을 실용화하면 현재 많은 설비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신 및 제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각각 단일시스템으로 구축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사업비 절감 및 수입대체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원 관계자는 “LTE-R기반 철도무선통신망을 국내기술로 실용화해 고품질 철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안전 운행과 가장 밀접한 열차제어시스템을 고도화해 철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전용 통합무선망(LTE-R),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란?

· LTE-R(Long Term Evolution-Railway)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를 철도에 접목하여 기존의 음성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및 열차제어까지 다양한 철도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



· KTCS(Korea Train Control System)
기존의 신호기, 궤도회로를 대신하여 LTE-R 무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속도를 가·감속하고 선로유량과 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